

3월 둘째주 청소년부 가정예배 인도자 매뉴얼

<p>#예배준비</p>	<p>1)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정한다. (주일 저녁 8시 권장) 2) 가정예배지를 가족 구성원 수에 맞춰 준비한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주일예배지 보기” 클릭!) 3) 인도자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가정예배를 인도한다. (형식은 변경할 수 있다.)</p>
<p>#예배인도</p>	<p>1) Ice Break : 예배 전 간단한 질문이나, 영상 하나를 보고 난 소감을 짧게 나눈다(택1) 1) 요즘 가수 지코의 ‘아무노래 챌린지’ 때문에, ‘챌린지(도전)’란 말이 유행이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의미 있었던 도전은 무엇이고, 꼭 해보고 싶은 도전은 무엇인가요? 2)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영상을 보고, ‘긍정적인’말로 상대방을 표현해본다.</p> <p>2) 예배로의 부름 및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성경책 참조) - 인도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p> <p>3) 찬 양 : 아바 아버지 - 인도자의 멘트에 따라 찬양을 부르고, 자연스럽게 합심기도로 넘어간다. ※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등 가능한 악기들을 활용한다.</p> <p>4) 합심기도 : 예배지에 있는 기도제목 등으로 인도자가 합심기도를 인도하고 뜨겁게 기도한 이후에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무리 한다.</p> <p>5) 성경봉독 : 가족 구성원이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 합독해도 되고, 전체를 합독해도 된다. - 인도자 : 1)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4절부터 20절까지 큰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시작!</p> <p>6) 설 교 - 예배지의 관찰질문을 통해 본문을 먼저 들여다 본다. - 아래의 설교문을 참조하여 인도자가 말씀을 나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이고 직업은 세리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그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통념이 있었는데 그 일중에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에서 거둬 들이는 금액 이상으로 가능한 한 지방에서 돈을 징수했고, 그 여분의 돈을 착취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부터 배척과 비난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깊은 고독감과 불안함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물질과 조건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레위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주어지지 않았을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네가 가고 있는 길 말고 나와 함께 다른 길로 가보자! 거기서 돌이켜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일 것입니다. 그때 레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어나 따르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레위 또한 지체하지 않고 예수를 따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눅5:29) 예수님은 레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렇게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17절 합독) 무슨말인가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용서 받을 죄가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 또한 죄인이었고, 그 죄를 치료할 영적인 의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겠죠. 죄의 족쇄에 매여, 죄의 습관에 마비되어, 죄에 갇힌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레위 뿐 아니라,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 뿐 아니라, 그들을 나무라던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사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p>

<p>#예배인도</p>	<p>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눅5:8)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너 같은 녀석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가 죄인이라는 것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죄인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p> <p>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제자로서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죄인은 이웃이자, 친구이며, 치료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눈을 돌려 보세요. 이해하기도 용서하기도 어려운 악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들은 누가봐도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만 죄인인가요? 그들이나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의롭고 거룩해서 교회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정직하고 순결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돌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치료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한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p>
	<p>7) 생각나누기 : 설교 말씀을 듣고 질문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본다.</p> <p>Q1.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깨달았던 사건이나 늘 말썽꾸러기였음에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확신했던 순간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p> <p>Q2. 예수님과의 식사 잔치에 초대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죄인’은 누구인가요? 그 ‘죄인’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나누어 봅시다.</p>
	<p>8) 결단 및 적용</p> <p>1)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과 이번 한 주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본다.(인도자는 결단과 적용의 내용을 노트에 적어보고, 다음번 예배 때에 점검해 주는 것도 좋다)</p> <p>2) 결단하고 적용한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손잡고 축복하며 기도한다.</p> <p>모든 합심기도가 끝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로 정리한다.</p>
<p>#교제의 시간</p>	<p>1) 예배가 끝나면 서로를 향해 따뜻한 격려와 함께 포옹, 하이파이브로 서로를 응원하고, 다과가 준비되어 있다면 함께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가정예배의 소감을 나눈다.</p> <p>2) 가정예배 인증샷도 남겨본다. 청소년부는 매주 가정에서의 일상 및 가정예배 인증샷 콘테스트를 진행하여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함께 동참해보면 좋을 것 같다.</p>